

제 2 교시

존재론 영역

성명

수험번호

홀수형

1. <이론>에 따라 <사례>를 분석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론>
 존재란 특정한 사물이나 현상이 단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있음'이 지니는 관계적, 기능적, 혹은 목적론적 맥락을 포함한다. 그렇기에 사물의 존재는 그것이 속한 전체적 구조와의 연관성을 통해 정당화된다.

<사례>
 갑은 오래된 시계가 고장 난 채 서 있는 것을 보며 "이 시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을은 시계의 물리적 구조와 소재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존재한다'고 반박하였다.

<보 기>

ㄱ. 을의 입장은 시계의 물리적 특성을 강조하는 존재론적 실재론의 관점과 부합한다.

ㄴ. 갑의 주장은 시계의 기능적 역할을 존재의 본질로 보는 목적론적 존재론과 연관된다.

ㄷ. 이론에 따르면, 시계는 맥락에 따라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갑과 을 모두 틀렸다고 할 수 없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 <입장>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입장>

A: 존재론에서 실재는 반드시 관찰 가능하거나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한다.

B: 실재는 관찰 가능성을 넘어서는 비가시적 구조를 포함하며, 이러한 구조는 이론적 탐구를 통해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C: 비가시적 구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우리의 해석일 뿐이다.

<보 기>

ㄱ. A의 입장은 실증주의적 존재론과 일치한다.

ㄴ. B는 실재의 이론적 구성 가능성을 강조하는 형이상학적 관점을 지닌다.

ㄷ. C의 주장은 해석학적 관점에서 존재의 객관성을 부정한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 ④ ㄴ, ㄷ ⑤ ㄱ, ㄴ, ㄷ

3. 다음 글의 내용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물의 존재란 단순히 물리적 실체에 국한되지 않는다. 어떤 존재가 진정으로 실재한다고 말하려면, 그것이 우리의 삶과 실천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존재'라는 개념이 고정된 실체라기보다는 역동적 관계 속에서 파악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된다.

- ① 존재는 본질적으로 관계적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 ② 물리적 실체는 존재의 충분조건이다.
- ③ 실재성은 삶과 실천의 맥락 속에서 평가될 수 있다.
- ④ 존재의 개념은 전통적 실체론적 접근을 넘어선다.
- ⑤ 존재는 고정적이기보다는 역동적인 성격을 가진다.

4. 다음 글의 내용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존재자(개별 사물)의 존재와 존재(존재의 근원적 의미) 사이에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 가령 책상 위의 한 권의 책은 존재자로서 특정한 위치에 놓여 있고, 인간은 이 책을 통해 독서 활동을 한다. 책이라는 존재자는 독서라는 실천을 통해 그 존재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 ① 책은 단지 존재자일 뿐 존재의 본질을 내포하지 않는다.
- ② 독서를 통해 책의 존재가 의미화된다.
- ③ 존재자는 고유한 의미를 가지므로 별도의 존재론적 차이를 논의할 필요가 없다.
- ④ 존재론적 차이는 존재자가 단순히 물리적 객체를 넘어서는 의미를 지님을 강조한다.
- ⑤ 책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지 않고, 인간의 실천에 의해 의미를 획득한다.

5. <가설>을 입증하거나 약화시키는 증거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가설>
존재는 인간의 인식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보기>
ㄱ. 천체의 운동은 인간의 인식 이전부터 존재했으며, 우리의 관찰이 그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ㄴ. 인간의 언어와 관념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연법칙은 여전히 작동한다.
ㄷ. 양자역학적 관찰에서는 관찰자의 개입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ㄹ. 특정 문화에서는 존재를 해석하는 방식이 실재를 다르게 구성한다.

- ① ㄱ ② ㄴ, ㄹ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ㄹ

6. 다음 <견해>에 따라 옳지 않은 주장은?

<견해>
A: 우리는 존재를 물리적 실재로 환원하려는 유혹을 거부해야 한다. 물리적 세계는 우리 경험의 한 부분일 뿐, 존재의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수학적 객체나 도덕적 가치와 같은 비물리적 존재는 물리적 실재로 설명될 수 없는 방식으로 존재한다. 수학적 진리는 물리적 세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도덕적 가치는 우리의 사회적 관습이나 물리적 조건과 독립적으로 참된 방식으로 존재한다. 이와 같은 비물리적 존재는 우리가 존재론을 논의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중요한 요소다.
B: 때로는 실체와 추상적 개념의 차이를 혼동이 논증 과정에 있어 치명적인 오류를 일으킨다. 수학적 객체나 도덕적 가치는 존재의 일부가 아니라 인간 사고의 산물일 뿐이다. 존재를 논할 때, 우리는 물리적 실재에 국한해야 한다. 도덕적 가치는 사회적 구성물이며, 수학적 객체는 단순히 추론과 논리적 작업의 도구일 뿐이다. 그것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 인식의 효율성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C: 존재에 대해 논할 때 그것을 지나치게 협소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인 관점을 취해서는 안 된다. 존재는 우리가 속한 맥락과 우리의 행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수학적 진리나 도덕적 가치는 그것들을 사용하는 인간 행위 속에서만 의미를 가지며, 물리적 실재나 추상적 실재로 간주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존재를 정적이고 독립적인 것으로 보는 대신, 변화하고 수행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 ① A의 주장은 비물리적 존재를 논의의 중심으로 놓으려는 시도다.
② B의 관점은 모든 존재를 물리적 실재로 환원하려는 입장을 반영한다.

- ③ C는 존재를 관계적이며 행위 중심으로 이해한다.
④ A의 견해에 따르면, 물리적 세계는 존재론적 탐구의 핵심이 된다.
⑤ B는 수학적 진리의 독립적 존재를 인정한다.

7. <논쟁>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논쟁>
A: 존재를 이해하는 핵심은 실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에 있다. 나는 실체는 외부적 관계나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가 사과를 본다고 할 때, 그 사과가 우리 시각적 경험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나는 그렇다고 본다. 사과는 우리의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그것이 실체의 본질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실재를 구성하는 요소와 비실재를 구분할 수 있다.
B: 나는 A의 주장이 단순히 독립성을 강조하는 고전적 실체론에 그친다고 생각한다. 존재는 독립적 실체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모든 존재는 상호의존적이며, 관계 속에서만 이해할 수 있다. 사과는 단지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방식을 통해 존재의 의미를 획득한다. 만약 우리가 사과를 보지 않고,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존재란 단순히 물리적 객체가 아니라, 그것이 속한 관계적 구조에서 드러난다.
C: 나는 A와 B 모두가 실체적 혹은 관계적 존재를 지나치게 강조한다고 본다. 존재는 결국 인간의 언어적 구조와 인식 틀에서 형성된 산물이다. 사과라는 개념조차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한계 내에서 정의될 뿐이다. 존재를 독립적 실체나 관계 속에서만 설명하려는 시도는 결국 인간 인식의 구성적 성격을 무시하는 것이다. 존재란 물리적 실재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해석적 틀 속에서만 가능하다.

<보기>
ㄱ. A의 주장은 독립적 실체의 존재를 옹호하며, 비관계적 실체론의 입장을 반영한다.
ㄴ. B의 관점은 존재를 관계적 맥락에서만 정의할 수 있음을 주장하며, 현대적 실체론의 특징을 보여준다.
ㄷ. C의 주장은 존재를 언어적 구성물로 간주하며, 존재론적 탐구의 보편성을 부정한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8. 다음 <사례>를 <이론>에 따라 분석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론>

존재는 그것이 속한 전체적 구조 속에서 의미를 가진다. 또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모든 존재는 맥락적이다.

<사례>

을은 오래된 다리 위를 걸으며 "이 다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병은 "다리는 여전히 서 있고 물리적으로 존재하므로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갑은 "다리는 단지 물리적 구조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존재한다. 만약 다리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 ① 을의 견해는 물리적 실재를 존재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다.
- ② 병의 관점은 물리적 구조가 존재를 정의한다고 주장한다.
- ③ 갑의 입장은 다리의 존재를 관계적이고 기능적인 관점에서 정의한다.
- ④ 을과 병 모두 존재를 독립적 실체로 이해한다.
- ⑤ 갑의 주장은 다리의 물리적 상태를 존재의 핵심으로 간주한다.

9. 다음 글의 내용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사물의 존재를 이해할 때, 단순히 그 사물이 '있다'는 사실로 충분할까? 나는 사물의 존재를 이해하는 데에는 우리의 인식적 틀과 윤리적 책임이 깊이 얽혀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 윤리적 판단은 우리가 자연을 단순한 물리적 자원으로 보는 대신, 그 존재를 관계적 맥락에서 이해할 때 더욱 강력해진다. 나무 한 그루가 존재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단지 물리적 구조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그 존재의 의미가 달라진다.

게다가 이러한 존재론적 이해는 윤리적 실천과 분리될 수 없다. 우리가 환경 파괴의 책임을 논할 때, 이는 단순히 인간의 행동이 환경에 미친 영향을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환경을 어떻게 존재론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의 문제다. 만약 자연을 독립적 실체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얽혀 있는 상호의존적 존재로 본다면, 우리는 그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책임을 느낄 것이다. 이처럼 존재를 단순히 인식하거나 기술하는 차원을 넘어, 존재의 이해는 필연적으로 윤리적 판단과 연결된다.

<보 기>

- ㄱ. 존재를 관계적 맥락에서 이해하면, 윤리적 판단이 강화될 수 있다.
- ㄴ. 자연의 존재를 독립적 실체로 간주하면, 환경 보존에 대한 윤리적 책임이 약화될 수 있다.
- ㄷ. 존재론적 이해는 단순히 사물을 인식하는 것을 넘어, 윤리적 실천을 요구한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0. 다음 글의 내용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는 존재를 이해하려면 시간성과 가능성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흔히 존재를 고정된 실체로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존재는 본질적으로 변화 가능성과 잠재성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씨앗은 단순히 '현재'의 상태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성을 포함한 존재다. 따라서 씨앗의 존재를 논할 때, 그것의 현재 상태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그것이 미래에 어떤 방식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나는 존재의 가능성이 단순히 물리적 세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본다. 예술 작품은 그 자체로 물질적 객체지만, 동시에 무한한 해석의 가능성을 담고 있다. 고대의 조각상은 그것이 제작된 시대와 문화적 맥락에서는 특정한 종교적 상징으로 존재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미학적 대상으로 인식하며 다른 방식으로 그 존재를 경험한다. 이는 존재가 단일한 본질에 고정되지 않으며, 시간적 맥락과 관찰자의 인식에 따라 끊임없이 재구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는 존재를 '현실'과 '잠재성'의 긴장 관계로 정의한다. 현실은 현재의 상태를 가리키지만, 잠재성은 그것이 변화하거나 새롭게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존재란 결국 이 두 축 사이에서 끊임없이 형성되고 재정의된다.

<보 기>

- ㄱ. 씨앗의 존재를 이해하려면, 현재 상태뿐 아니라 그것의 잠재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ㄴ. 예술 작품의 존재는 시대적 맥락과 관찰자의 해석에 따라 재구성될 수 있다.
- ㄷ. 존재는 현실적 상태와 잠재적 가능성의 긴장 속에서 정의될 수 있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 ④ ㄴ, ㄷ ⑤ ㄱ, ㄴ, ㄷ